

늦은 발견 치명적…조기 진단땐 치료 효과 매우 커



문도식
조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폐암

대한민국 사망 원인 통계에서 수년째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암 사망률 1위가 '폐암'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인구 10만명당 약 38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이는 간암(20.4명)이나 대장암(19명)을 압도하는 수치다. 특히 60-70대에서 폐암이 급증하는데,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다.

숫자로 보면 현실은 더 분명해진다. 우리나라

수년째 대한민국 암 사망률 1위 차지
60-70대 급증…초기증상 거의 無
1-2기 수술로 완치 기대 가능 단계
금연·환기 등 중요…정기검진도 必

에서 매년 수만명이 폐암을 새로 진단받는데, 안타깝게도 절반 가까운 환자가 이미 4기, 즉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반면 암이 폐에 국한된 초기(1-2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은 75-85% 이상으로 높다. 수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다. 즉, 늦게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매우 큰 암이 바로 폐암이다. 문도식 조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를 통해 폐암의 증상과 진단, 치료법, 예방법 등을 알아본다.

◇기침·체중감소등 3주 이상 지속땐 의심

더 큰 문제는 폐암이 '비특이적 증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이다. 감기처럼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조금 섞이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폐암을 포함한 중증 폐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같은 부위에 폐렴이 반복되거나 목소리가 쉬어서 돌아오지 않는 증상도 중요한 경고 신호다.

◇위험요인 다양…'가장 효과적 예방은 '금연'' 폐암 위험요인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 흡연이다.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위험성이 10-30배 높다. 하지만 '이미 오래 피워서 소용없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금연하면 10-15년 사이에 폐암 위험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이자 치료의 시작이다.

흡연 외에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많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는 폐암 발생 위

험이 3-4배 높고, 특발성 폐섬유증(IPF) 환자는 5배 이상 높다. 직업성 분진, 규폐증·진폐증 같은 폐 질환도 폐암 위험을 크게 높인다. 미세먼지(PM2.5) 역시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농도가 $10\mu\text{g}/\text{m}^3$ 높아질 때마다 폐암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리 시 생기는 기름 연기(조리 흙),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의 장작·숯불 연기 등 실내 오염물질도 위험을 키운다.

◇국가 검진 지원 '저선량 흉부 CT' 활용
이처럼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위험요인은 곳곳에 있지만, 다행히 '조기 검진'으로 생존율을 크게 바꿀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국가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혹은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사람이 다. 2년에 한 번 헬스케어는 이 저선량 CT는 방사

선 노출량은 낮추면서도 폐암을 1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약 국가 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저 폐 질환이 있거나 고령증이라면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저선량 흉부 CT를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기기 등 일상적 실천으로 위험 줄여야

폐암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암이다. 금연, 간접흡연 피하기, 미세먼지 심한 날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작업 환경 관리 같은 일상적 실천이 위험을 줄인다. 여기에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더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도식 조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늘의 금연과 생활 습관이 10년 뒤 당신의 폐 건강을 결정한다"면서 "폐암이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는 통계는 여전하지만, 조기 발견과 예방을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리=기수희 기자

"고려인동포 진료 등에 실질적 도움 되길"

광주시의사회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수익금 중 4천500만원 광주진료소에

광주시의사회와 사단법인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이하 고사모)이 고려인 광주진료소의 진료 환경 개선 등에 힘을 보탰다.

9일 광주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백혈병 소아암 환우 및 고려인 광주진료소 후원제3회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과 광주진료소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콘서트에는 많은 시민과 회원들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이었다.

이에 광주시의사회는 콘서트 수익금 중 4천500만원을 고려인 광주진료소에 전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0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통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인 백혈병·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지원금 2천만원도 지정기탁한다.

최정섭(사진 왼쪽서 두 번째) 광주시의사회 회장은 "의료인의 나눔 정신이 지역사회와 고려인동포, 어려운 이웃, 해외의료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사회는 지난달 광산구 삼도에 있는 '백선비오로의집'에 500만원을 기탁했으며 향후 광주국제협력단, 아시아희망나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등 지역 내 다양한 사회



복지·의료 지원 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나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수희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하반기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최근 의약단체와 소비자 시민 여성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하반기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공단 담배소송 황소심 진행 경과, 의료 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공단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담배소송의 사회적 파급 효과와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제시했다.

/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국가 R&D 사업 'K-HOPE' 출범

'AI-Bio'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

3대 플랫폼 중심…'亞 암 허브' 도약

4만 암 테이터 토대 인체자원은행도

화순전남대병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 & Experimental trials)'를 공식 출범하며 AI-Bio 기반 아시아 암 허브 도약을 선언했다.

9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K-HOPE 심포지엄: 임상에서 혁신으로 화순이 여는 AI-Bio 미래'를 개최, 한국인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병원이 지난 20여년간 축적한 암 진료·연구 역량을 디지털로 전환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발표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은 "이 자리에는 AI 바이오 미래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혁신 신약 개발로 확대해 나갈지 논의하는 핵심적인 자리다"며 "향후 화순과 우리 병원 중심의 AI 바이오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K-HOPE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올해 핵심 R&D 사업으로, 임상·비임상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해 정밀의료 중심의 신약 개발



화순전남대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최근 열린 K-HOPE 심포지엄에서 조상희 종양내과 교수가 '한국인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신약 초기 실패 위험을 줄이고 임상시험의 속도와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3대 핵심 플랫폼은 ▲정밀의료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K-PRISM ▲AI로 암률 독성과 안전성을 예측하는 K-COSMOS TRI MAP ▲임상시험 운영을 디지털화하는 K-MAESTRO 등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조상희 단장은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Digital Asset)가 K-HOPE의 핵심"이라며 "AI·옴니스(Omics) 기반 분석을 통해 환자마다 최적 치료를 설계하는 초개인화 치료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금까지 4만여명 암 환자의 검체·유전자·치료 데이터를 확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정밀의료 모델 고도화와 연구 접근성을 높이는 웹 기반 인체자원은행 구축도 병행한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K-HOPE는 지·산·학·병·연(지자체·산업체·대학·병원·연구소)을 잇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며 "한국 바이오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HOPE 심포지엄'은 병원 중심의 신약 개발 협력 거버넌스와 AI 기반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을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강대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A1·바이오 시대의 미래의학과 지역 기반 신약 개발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양덕환 화순전남대병원 혈액과 교수는 진행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병원·스타트업 협력 모델과 임상·연구 융합 전략, K-HOPE 디지털 임상시험 생태계 구축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수희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부수 지역 배송비 추가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